

# 종교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해 12월 종단 대표로는 처음 서울 한남동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방문해 이슬람교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아시아 이슬람지역 학자들을 초청해 이슬람교의 이해를 돕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내 7개 종교의 연대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하이원 빌리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간 불협화음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아시아 지역 무슬림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사회 이슬람의 정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쿠크(Sukuk)'라 불리는 이슬람채권권이 개신교계의 거센 반대로 사실상 통과가 무산된 것은 이웃 종교를 적대시 한데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개신교계는 이 법안이 지나친 특혜이고 무슬림 과격파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반 이슬람 정서가 너무 커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슬람, 다가서다'를 주제로 무슬림이 주류를 이

## KCRP, '이슬람과 공존 모색' 세미나 조계종, 교류 '물꼬' 역할 담당하기도

무고 있는 사회에서 이슬람교를 믿거나, 비이슬람교도로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학자들을 초청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화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풀어내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엔 치 경 교수는 "소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웃 종교를 믿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존경의 의미로 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며



지난 9일 서울 하이원 빌리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엔 치 경 말레이시아 국립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9일 불자라고 밝힌 유엔 치 경 말레이시아 국립대 언어학부 교수는 다수의 무슬림 친구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종교는 타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슬람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불교계가 이웃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앞장선 행보가 이와 같은 대화의 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조계종은 그동안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상생과 화합은 매우 중요하고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교는 다종교 사회에서 상생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올해 이주화 한국이슬람교 이맘 등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봉축 범오식에 대거 참석한 것도 불교계가 먼저 손을 내민데 대한 화답의 표시이다. 앞으로 조계종은 2013년 '세계종교 지도자포럼'을 열어 종교간 화합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원 사회국장 묘장스님은 "다인종 다종교 사회로 흘러가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5대결사 기금 첫 기부 감사"

## 성각스님 1000만원 전담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스님이 지난 4월 개최한 선서화전 수익금 가운데 1000만원을 자성과 쇠신을 위한 5대 결사 기금으로 전담했다. 성각스님은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5대결사 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선서화전을 여느라 애쓰셨는데 종단의 5대결사기금으로 처음 전달해줘 감사하다"면서 "5대결사 추진본부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결사를 전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성각스님은 "오는 가을 부산에서 선서화전을 또 다시 열 계획"이라며 "가을 전시회에서도 수익이 생긴다면 종단 일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각스님은 지난 4월26일부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스님(오른쪽)이 지난 4월 개최한 선서화전 수익금 가운데 1000만원을 자성과 쇠신을 위한 5대 결사 기금으로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에게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터 5월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분타리카 피엠티네'라는 주제로 선서화 특별초대전을 열었다. 성각스님은 분타리카, 달마,

동자승, 망운사 풍경 등을 주제로 그린 100여 점의 선서화를 통해 안을 하고 운치있는 수묵의 세계를 그려냈다. 박인탁 기자

## 전통불교문화원 참선프로그램 진행

### 참선입문 심화과정 3차례

공주 대하산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스님)은 오는 7월과 8월 3차례에 걸쳐 참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참선프로그램은

### 참선입문 10기 과정이 오는 7월17일부터 21일까지, 11기 과정이 오는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4박5일동안 진행된다.

또한 전통불교문화원과 인제대 발원의 참선입문과정 수요자나 해

남 미항사 참사람의 향기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참선심화과정은 오는 8월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동안 진행된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스님이 전 과정을 진행하며 참선이론 강의와 더불어 실참수행을 병행하게 된다. 박인탁 기자

### 社告

#### 탈북주민(새터민)에게 이불을 지원합니다

불교신문과 안성 칠장사가 공동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매월 250여 명의 탈북주민이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지원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니다.

- 주최: 안성 칠장사·불교신문사
- 주관: 안성 칠장사
- 후원계좌: 농협: 351-0303-0852-33 (이월 1회 2만4000원)
- 예금주: 칠장사
- 연락처: (031)673-0776

불교신문사

## 전통사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 '세계문화유산 이해' 증무원 교육 실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유관기관의 전체 증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의미와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이상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장(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이 '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관련기사 12면

이상해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의 내용과 의미, 현황, 등재 절차 등을 소개한데 이어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

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전통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면서 "전통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 辭令

편집국  
김선두 命 기획편집팀장  
김하영 命 종단신행팀장  
2011년 6월 10일자  
불교신문사

### 신임 연수국장에 가섭스님

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스님(사진)이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 신임 연수국장으로 임명됐다. 교육원장 현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관 2층 집무실에서 가섭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태현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가섭스님은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2001년 범어사에서 범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 현장에서

### "불자 나서 '사이비승려' 근절"

최근 들어 도심의 주요 사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호신불 등의 불구(佛具)를 강매하는 '사이비승려'가 늘고 있다.

사찰에서 범회가 있는 날이면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호신불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듯 하지만 보시금을 달라고 한다. 보시금을 내지 않으면 인상을 찌푸리며 호신불을 되돌려달라고 한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 3만원을 내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홍포차원에 서의 보시나 사찰봉사를 위한 권선관양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니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생길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스님이 물건을 강매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에 상점과 술집 등을 돌며 탁발을 하던 사이비승려는 최근들어 많이 줄어들어 반해 이처럼 물건을 강매하는 '사이비승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티베트와 중국, 동남아 출신 '사이비승려'도 이같은 행렬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종에서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많은 폐단을 야기하는 개인적인 거리탁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이나 전국 본사가 물건을 강매하는 '사이비승려'를 합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

다. '사이비승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자가 나서야 한다. '사이비승려'가 강매하는 물건을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이들의 물건을 사서는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서 사발 염의한 스님인데'나 '오죽하면 저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겠다'는 식의 오만이나 동정은 '사이비승려'를 더욱 더 양성할 뿐이다.

일반인들의 뇌리속에 '불교는 물건을 강매하는 종교'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리 2000만 불자가 스스로 나서야 할 때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 제2회 청호불교복지대상 공모

공모사업내용 :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사례 및 사회복지 연구부문

목적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창립자 이종대선생의 평소 신념인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또한 사회복지연구를 장려하여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임.

### 심사 부문 및 시상 내용

▶심사 부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문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사례 및 연구업적 부문

▶응모사업 대상 조건  
프로그램사례 부문 -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

연구 부문 - 2010년 9월 1일~2011년 8월31일 출판 서적 또는 논문

### 시상 내용

- 프로그램 부문
  - 대상: 1,000만원(기관 7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300만원)
  - 우수상: 500만원(기관 4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100만원)
  - 장려상: 200만원(기관 15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50만원)

- 연구 부문 - 연구상: 300만원
  - 불교 관련 사회복지프로그램실천사례와 연구의 경우 특별 가산점 부여.
  - 대상의 경우 해당자가 없을 시에는 우수상 또는 장려상의 수상자로 복수 선정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의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 자격

- 1)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의 사회복지사업자
- 2)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사찰
- 3) 연구업적 부문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사회복지학 및 관련학의 연구자

### 응모방법 및 접수 마감

- 1) 응모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제출시 관련 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USB 저장 홈페이지(www.chbuddha.com) 참조 이 메 일(kyt606@hanmail.net)
- 2) 접수마감 :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인이 찍힌 제출물에 한함

### 구비 서류

- ▶사회복지프로그램사례 부문
  - 1) 신청서(양식1) 1부
  - 2) 사업계획형식(양식2) 1부
  - 3) 단체일 경우 정관 및 회칙 사본 1부
  - 4) 관련 증빙서류(사진, 스크랩, 평가서 등) 1부
  - 5) 불교신자 증명서(스님은 제외)

### ▶사회복지연구업적(서적 및 연구논문) 부문

- 1) 신청서 1부
- 2) 서적 및 연구논문 1부
- 3) 불교신자 증명서(스님은 제외)

### 수상자 발표

- ▶시상 시기: 2012년 2월 중순
- ▶발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기타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2.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재단사무실: (02)517-3052, 연구소: (02)517-3045, Fax: (02)515-3021, (02)542-0519  
신청 주소: (우편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2 청호불교문화원 내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주최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주관 |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이종욱 합장